지역 소식통

농와장인재육성장학재단 고창청소년 장학증서 수여

(재)농와장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김영복)이 24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전 학년 1·2학기 성적 평점·평균 90점 이상자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5명을 선발 계획하여 지난 2월21일 재단과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받았다.

장학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7명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 장학금 11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 날 함께 참석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장학생에 선발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동기부여의 기회가 됐다"면서, "장학재단에서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 실시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가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집단의 문제해결, 갈등해소, 전략수립 등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여 마을공동체간의 참여와 소통을 돕고 주민 화합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는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돕는 지역 활동가(부안종합사회복지관,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 사무소,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안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18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교육은 3월 22일(화)부터 4월 26일(화)까지 총 6회의 교육이 기본과정(24시간), 심화과정(12시간)으로 구성되어,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

정읍시, 도심 곳곳 가로수 식재 · 보식…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정읍시가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 명성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단풍고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운전자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국도 1호선(감곡~입암) 구간 내 단풍나무를 심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 1호선 단풍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년간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으로 감곡~정우 구간에 단풍나무 2,838본을 식재한 바 있다.

올해는 2억5,5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우~태인 구간 6.34㎞에 단풍나무 349본과 무궁화 67본을 심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풍나무 가로수 보식 사업으로 수성 택지지구와 시도 32호선 등에 단풍나무 61본을, 칠보면 우회도로(시산교차로~와우삼거리)에 단풍나무 102본을 심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1일까지 3,200만원을 들여 정읍 9경 중 하나인 벚꽃길에 식재된 왕벚나무 중 수형불량목 16본을 교체하고, 결식지에 1본의 왕벚나무를 보식한다.

이를 통해 시민을 비롯한 상춘객이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맞이하게 함과 동시에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수형 불량 미관 저해 나무와 병충해 피해목 등 210본에 대한 교체·보식 사업을 추진하며 벚꽃길 유지관리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 명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속도'

고창군, 군민이 편하게 야외활동 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

고창군이 군민이 편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발전·산업·생활·수송 부문별 저감 조치와 특별 점검 상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사업비 총 54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3억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5억원 등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노후 경유차 중점관리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점검원을 채용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노천소각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청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 청정지역 고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영농잔재물 소각금지,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태인 전통시장,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 재탄생 '시동'

정읍시 신태인 전통시장이 국비 공모사업과 정읍시의 지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시는 지난해 전라북도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신태인시장의 노후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신태인 전통시장은 각종 농·수산물과 정육, 각종 반찬류 도소매 점포 수십 개가 모여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도비 6억원과 시 자체 예산 4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건물 지붕 시설과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우선 사업비 8억7천만원을 들여 시장 건물 내부 균열 등을 보수하고, 1,480㎡ 규모의 비 가림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직사광선 차단과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 시장 상인들이 궂은 날씨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쇼핑 환경을 최적화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진입도로 2,000㎡를 정비해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방수, 도색, 비 가림개 시설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에는 마을별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며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머무르고 싶은 진서면 되도록"

권익현 부안군수, 진서면 군민과의 생생소통대화 성료

부안 진서면은 24일 곰소젓갈발효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에는 마을별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며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200만원, 이장단협의회와 돌개영농조합법인에서 각 1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면정 주요업무보고, 군정비전 공유, 생생소통대화, 민생탐방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안'이라는 슬로건으로 2021년 성과 및 2022년 업무계획을 듣는 비전공유 시간을 가져 군정에 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주요업무 보고에서 2,200여 면민의 숙원사업으로 2025년까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1,000억원 이상이 진서면에 투자되어 진서면의 어업환경과 직접적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생소통대화 이후 관내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안을 살피는 소통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진곤 진서면장은 "임인년에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며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다시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진서면이 되도록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결핵 예방 · 조기 발견 위한 무료 검진

정읍시가 '제12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 예방수칙 준수와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특히,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말과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균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결핵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읍시보건소는 결핵 발병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객담 검사도 진행한다.

검진 결과 환자로 진단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시작하고, 완치시까지 환자의 진료 일정과 복약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치료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결핵 검진(흉부 엑스선 검사, 객담 검사)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